

Lost

정은진
(B499350)

시놉시스

여자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급하게 지나가는 자동차와 실랑이를 하다 아이를 잃어버린다. 여자는 놀라서 지하주차장이며 엘리베이터, 아이가 자주 가던 아파트 놀이터 등 아이를 찾아다닌다. 아이의 울거나 여자를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는 어디선가 계속 들리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의 행방을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못봤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며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기도 한다. 그러는 중에도 아이의 우는 소리는 계속 들려온다. 아이의 행방을 전체적으로 보기위해 높은 곳에 올라 멀리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보며 아이를 찾는다. 여자는 남편에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전화를 하는데...남편의 목소리는 더 불안하다. 여자는 주저앉아 흐느낀다. 새들의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분다. 아이가 여자를 찾는 목소리는 점점 작게 찾아든다.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는 여자. 처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자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발견한다. 유모차에서는 여자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자는 그제야 아이를 찾은 듯 유모차로 다가가 기뻐한다. 그 유모차에는 잃어버린 아이가 입은 옷을 그대로 입은 사람 인형이 타고 있다.

아이디어 착안

영국 옥스포드에서 지낼 때 겪은 일이다. 임신 6개월차의 나는 부른 배를 하고 옥스포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한 차림의 백인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내 곁으로 와서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 옆 벤치에는 자리가 많았는데도 말이다. 문득 여성이 끌고온 유모차를 보니 그 곳엔 아이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닌 여자아이 형상을 한 낡은 인형이 타고 있었다. 이 일은 임신을 하고 있었던 내게 큰 인상으로 남았던 일이다. 이 실제로 겪은 일에서 스토리를 착안했다.

기획의도

'lost'라는 제목은 '아이를 현재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실제로 잃다'의 중의적인 의미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를 잃은 내용으로 진행하며 아이를 찾다가 알고보니 여자는 이미 아이를 잃은 상태이며 이 고통으로 인해 정신착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마지막에 일어나는 반전이 이 시나리오의 큰 맥락이다. 실제로 일어난 아이를 잃은 엄마의 고통과 슬픔을 1인칭 vr로 제작하여 이를 체험하는 이들의 현존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이를 찾는 긴박하고 지난한 과정을 vr의 특징인 오픈 월드와 1테이크 또는 3번 정도의 컷 과정으로 풀어낸다. 다시 말해 프레임으로 본다면 단순 '스튜디오'으로 느껴질지 모르는 영상을 vr의 체험적 요소를 통해 개인적 기억의 '푼크툼'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관객은 360도 공간을 주인공의 시선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둘러보며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

설계계획

1.시점의 설정

전반적으로 주인공 여자의 머리카락이나 몸에 고정된 카메라가 설치되어 관객의 시선이 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용한다. 이 시나리오의 1인칭 관찰자시점은 무척 중요하며 아이를 잃은 여자의 상황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며 체험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관객은 이 시점을 통해 여자의 상황을 함께하는 동시에 화면을 움직이며 여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찾기'방식 또한 느껴볼 수 있다.

2.카메라의 움직임

주인공 여자의 몸에 fix된 카메라는 아이를 찾는 여자의 상황을 1인칭으로 보여주는데 이동은 여자가 아이를 찾기위해 움직이는 경로와 일치한다.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옥상(최상층)->본인집->놀이터->뒷산->다시 지하주차장)

3.주의 영역

자동차 크랙션 소리, 여자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특정 방향에서 들리는데 이 부분으로 관객의 주의 집중을 유도한다. 이 것은 아이를 찾으려는 여자의 목적의식으로 여자의 이동경로가 발생하고 이를 헤드폰으로 듣는 관람객은 아이의 목소리에 따라 여성의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 따라가며 마주치는 주민들의 대화도 시선을 이끄는 방향성의 하나다. 이 부분이 이 시나리오의 프레임을 보게 만들어주는 신호체계다.

4.360도 공간 디자인

세종시 달빛1로에 위치한 한 신도시 고층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관련 단지의 여러 장소들이 배경이다. 겉에서보면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때가 많다. 폐쇄성이 강하고 밀실처럼 숨겨진 장소가 많아 실제로 아이나 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로케이션 리서치를 완료하여 시나리오를 썼다.

5.장르와 서사 디자인

장르와 서사는 스릴러 드라마다. vr의 특성상 스릴러와 공포가 현존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가 많다.

6.편집디자인

이 부분은 고려한 것이 없다. 편집파트 스텝을 만나 추후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

7.사운드디자인

자동차 클랙션 소리, 엄마를 찾는 사방에서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주머니에 넣어진 채 계속 무어라 말하는 남편의 전화소리.

8. 스텝 설정

vr은 스텝들은 다 빠져야하거나 연기자가 되는 경우가 필요하니 스텝을 주민 1,2 으로 연기시킨다.

9. 등장인물

엄마,아이, 운전자1 주민1 주민2남편(목소리)

10 스텝

아기를 케어하는 사람 1명

스텝 3을 주민 3명으로 전환

*주의할 점

아기가 어디론가 사라져야 하는 부분에서 360도 오픈월드 특성상 아이가 없어지는 장면이 찍힐 것 같아 신경쓰임. 원테이크이면 아이가 어떻게 사라져야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컷을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함, 이 부분을 교수님과 스텝들과 상의해야함

S#1 신도시 지하주차장

신도시 한 아파트.

외부와 연결된 지하주차장으로 유모차를 끈 여성이 들어온다.

여자는 유모차에 탄 아이를 내려다본다. 아이는 형광색의 옷에 머리에는 빨간색 뿔이 꼽혀있다.

유모차에 탄 아이 : 엄마엄마 빨리 집에 가요.

여자 : 그래그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지하주차장은 길고 복잡하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힘겹게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차가 클락션을 울리며 빠른속도로 쓱 가로지른다.

여자와 아이는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여자 : 까악!

남자 : (창문을 내리고) 거 조심하쇼!

차는 여지없이 쓱 지나친다.

여자 : (가슴을 쓸어내리며 유모차 아래로 시선을 떨구며) 아인(아기 이름)아 괜찮아?

그러나 유모차에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질 않는다.

여자는 놀라서 유모차를 그 자리에 두고 아이를 찾는다.

여자 : (다급하게 소리치며) 아가, 아인아, 어딴어? 아인아!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뒤인지 앞인지 옆인지 확실하지 않다. 오른쪽인것 같다.

아이 : (멀리서) 엄마! 엄마! 어딴어?

여자 : 아인아, 아인아!

정신없이 지하주차장을 뛰어다니며 차 밑과 구석진 곳을 찾는 여자.

여자 : 저기요, 여기 이만한 여자아이 못보셨어요? 머리를 묶고 빨간색 뺨을 꾀었어요.
돌망똥망하게 생긴...

주민 1: 아뇨, 못봤어요. 애 잃어버린 거예요? 어째요...

여자 : (주민에게 인사도 하지않고 다급하게 어딜 찾으며) 아인아, 아기야!

S#2 엘리베이터

여전히 어디선가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엔 앞쪽. 버튼을 누르고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번엔 위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엘리베이터엔 주민이 타 있다.

여자 : 여기 엘베에 이만한 여자아이 못보셨어요? 네살이고...머리에 빨간색 뺨을 꾀었어요...

주민 2: (안스러운듯 눈을 못마주치며 여자를 흘깃 쳐다보며 혀를찬다) 쫓쫓...

주민 3: 먼저 집에 올라가 있는거 아니에요? 엘베를 타고 올라갔거나...

주민 3이 말하자 주민 2가 주민 3에게 눈치를 주고 무어라고 귓속말을 한다. 그러자 주민 3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여자는 엘베를 타고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간다. 아이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리는데 옥상문은 잠겨있다.

S#3 여자의 집과 아이의 방

다급해진 여자는 사방이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엘베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 아이의 물건과 생활가재도구가 집의 사방에 흐트러져 있다.

여자는 온 집을 찾다가 밖에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는다.

아이 : (멀리서) 엄마! 엄마!

S#4 놀이터

여자는 다시 밖으로 간다. 아이가 자주가던 놀이터로 달려간다.

놀이터에서 아이와 닮은 아이를 발견하고 아인아! 하고 뛰어가지만 그 아이는 아인이 아니다.

아이를 찾기위해 소리를 치는 여자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쳐다본다.

S#5 놀이터

놀이터 바로 뒤에 산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오르는 여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며 넓은 시야에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다.

뒷산 계단에 올라 아파트를 내려다보는 여자.

그래도 아이가 보이지않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한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찾아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여자 : 여보, 여보. 우리 아인이가 없어졌어....

남편 :

여자 : 여보, 여보...우리 아기가...어떡하지...흐흐흑

남편 : ...왜그래. 왜...이제 그만해...

여자는 굳은 표정을 하고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핸드폰을 끄지않은채로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사방 어딘가에서 아이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서 들려온다.

그 소리는 갑자기 뒷산 중턱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로 전환된다.

S#6 지하주차장

여자는 터덜터덜 걸음으로 산을 내려와 유모차를 놔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

멀리서 유모차 뒷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유모차가 있는 곳에서 아이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기 : 엄마!

여자는 유모차에 급하게 달려간다. 지하주차장에 차는 계속 정신없이 들어온다. 유모차로 다가가서 유모차 안을 쳐다보니 형광색 옷을 입고 머리에 빨간색 뺨을 낀 아이와 닮은 인형이 유모차에 타있다.

여자 : (울먹이며)...아...아가...아인아...우리 아가 여기 있었네...어디 갔었어...빨리 집에가자...엄마 걱정했잖아...

여자는 인형이 탄 유모차를 끌고 차가 계속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지하주차장을 지나친다.

-끝

로케사진

